

# 칸의 영광 관객 화답 ... '기생충' 1000만

올 네번째 ... 역대 26번째 작품성·대중성 모두 갖춰 해외서도 탄력 받을 듯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마침내 1천만 관객을 돌파한다.

2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기생충'은 전일 관객 1만1766명을 추가해 누적 관객 수 998만8580명을 기록했다. 1천만까지는 불과 1만1420명 남아 이날 또는 다음날 1천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된다.

이로써 역대 26번째, 올해 들어 '극한직업', '어벤져스: 엔드게임', '알라딘'에 이어 네 번째 1천만 영화가 탄생한다. 한 해에 개봉한 영화 네 편이 1천만 관객을 돌파하기는 사상 최초다. 봉준호 감독은 '괴물' (2006) 이후 두 번째 1천만 영화를 보유하게 됐다.

◇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춘 영화 '기생충'의 1천만 관객 돌파는 단순히 26번째 1천만 영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난 5월 30일 국내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장편영화로, 지난 5월 프랑스 칸에서 열린 올해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자 가족과 가난한 가족을 통해 빈부 격차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국 이야기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인 이야기로, 보편적인 공감을 얻었다.

'기생충'이 1천만 관객을 넘어서면 이 영화는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영화라는 점이 확인된다. 그동안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한국영화 중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은 없다.

2007년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밀양'은 최종 관객 수 160만4439명, 2009년 심사위원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박쥐'는 220만8165

명, 2010년 각본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시'는 21만8898명에 그쳤다.

'기생충'은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영화는 작가주의적이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뜨린 것이다.

전전일 영화평론가는 "기생충'은 대중을 불편하게 하는 영화'라며 "대중영화의 화법과 문법을 거스르는 불편한 영화가 1천만을 넘는다는 것은 한국영화뿐 아니라 세계 영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역사를 새로 썼다"고 강조했다.

◇ 올해 네 번째 1천만 영화의 탄생 '기생충'까지 올해 들어 개봉작 네 편이 벌써 1천만 고지를 밟았다. 그동안 한 해에 1천만을 넘는 영화는 많으면 2-3편 정도였다.

'기생충'은 올해 상반기 한국영화 관객 수를 끌어올리는 데도 일조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한

국영화 관객은 568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91만 명(26.5%) 증가했다.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도 전년 동기 대비 5.4%p 상승한 52.0%였다. 2013년 이후 6년 만에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50%를 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천만을 돌파한 '극한직업'과 '기생충'의 흥행 덕분이라고 영화진흥위원회는 분석했다.

'기생충'이 장기 상영 끝에 1천만을 넘어서는 데는 N차관람(다회차 관람) 관객이 많았던 점이 주효했다.

CGV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기생충' 개봉 이후 지난 18일까지 재관람 관객 비율은 5.1%로, 같은 기간 상위 10개 영화 평균 재관람률(2.9%)보다 높았다. 관객들은 영화 속 여러 유유와 상징에 대해 생각하고 함께 토론하며 영화관 밖에서도 영화의 화제성을 견인했다.

관객 연령대도 다양했다. 특히 50대

## 마동석, 마블 영화 출연... '이터널즈' 주연 길가메시 역

배우 마동석(사진)이 마블 영화에 출연한다.

21일 마블 스튜디오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코믹콘에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 페이즈 4 영화의 라인업을 발표했다.

이 라인업에 따르면 2020년 11월에 개봉하는 영화 '이터널즈'에는 마동석(영어 이름 돈 리)이 주연인 길가메시 역을 맡는다. 마동석은 한국 출신 남자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마블 영화에 출연하게 됐다.

마동석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이종격투기 트레이너 등으로 활동한 미국 국적 배우로, 영어 연기에 무리가 없다.

'이터널즈'에는 마동석 외에도 앤젤리나 졸리, 리처드 매든, 셀마 헤이악 등 유명 할



리우드 배우들이 출연한다. 초능력과 불사의 몸을 가진 '이터널' 종족에 관한 이야기로, 클로이 자오가 메가폰을 잡는다.

한편 마블 스튜디오는 이밖에도 '샹치', '원더비전', '로키', '닥터스트레인지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등 다른 영화의 개봉 일정도 함께 공개했다. /연합뉴스

## 역시 김태호 PD

MBC TV 예능 '놀면 뭐하니?' 프리뷰 시청률 4.2%

MBC TV 간판 예능이었던 '무한도전' 시즌 종영 후 오랜만에 등장한 김태호 PD-유재석 조합의 신작에 방송 전부터 시청자 눈길이 모였다.

2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0분 방송한 '놀면 뭐하니? 프리뷰'는 4.2% 시청률을 기록했다. 광고주 핵심 지표인 20-49세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2.2%를 기록,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김태호 PD의 저력을 보여줬다.

앞서 유튜브를 통해 먼저 포맷이 공개된 '놀면 뭐하니?'는 평소 스케줄 없는 날 '놀면 뭐하니?'라고 말하는 유재석에게 카메라를 맡기면서 시작된 릴레이 카메라로, 수많은 사람을 거처며 카메라에 담긴 의외의 인물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길 예정이다.

프리뷰에서는 유재석이 이 프로그램 로고를 직접 쓰는 모습과 드럼 연주를 하는 일상 등이 자연스럽게 담겼다. 예고편에는



'릴레이 카메라'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처며 카메라 수반만 아니라 전국에서 해외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는 모습이 담겨 분방송을 기대하게 했다.

다만 유튜브용 예능을 TV로 옮겨오면서 재미 요소와 집중도가 떨어진다 지적도 적지는 않았다. '김태호 PD와 유재석의 재회'라는 시청자의 욕구는 충족했지만, 포맷이나 내용 면에서는 아직 '물음표'라는 반응이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휴스턴 국제영화제 수상작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여100m 배영 예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퍼퓸(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검법남녀 시즌2(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정재영의 이슈in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열린채널 광주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40 미니다큐(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50 뽀뽀모 도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모두 다 쿵따리	00 월드컵스튜디오 2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00 5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우기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쏘자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검법남녀 시즌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스페셜	00 퍼퓸	05 스트레이트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1	00 여름방학 스페셜 대학의 희열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05 문화콘서트 난장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10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 하이라이트	15 나이트 라인 45 앙코르 고향견문록 스페셜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그(재)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7:00 로보카 폴리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다큐 오늘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10 최고의 요리비결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파 피그	13:40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8:00 똥덩이 유치원1~2	14:30 꼬마버스 타요(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몬카트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여름이니까 몽골,바이칼 1부 초록양탄자의 초능력자>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9:00 마사와 곰	15:45 출동! 슈퍼왕스(재)	<여름 김치를 아시나요? 1부>
09:15 출동! 슈퍼왕스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원더볼스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똥덩이 유치원1~2(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 48년생 다양한 방법의 계발은 접근성을 높인다. 60년생 가는 말이 고야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다. 72년생 결실이 미진하였다. 84년생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3, 81</p>	<p>42년생 묵묵히 나아가자. 54년생 현실성 있는 설계와 지속적인 노력 속에 희망이 싹트리라. 66년생 결과물이 도출되는 기쁨을 맛보겠다. 78년생 마음을 비우고 긴 안목으로 내다보아라. 90년생 분의 아닌 언행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0, 65</p>
<p>37년생 개화하는 형상이다. 49년생 별문제 없으니 그대로 추진해도 된다. 61년생 과감해야만 실행의 효과가 증폭 될 것이다. 73년생 내부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85년생 유혹에 빠진다면 손재수에 휘말릴 수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89, 09</p>	<p>43년생 양호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55년생 실상가상에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67년생 변동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백 번 낫다. 79년생 눈은 풍년인데 입은 흉년이다. 91년생 헛대에 동지고리 넘어가듯이 걸리는데 없이 가볍게 처리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1, 82</p>
<p>38년생 상대방의 말속에는 표현하지 않은 핵심이 숨어 있음을 간파하지 말아야겠다. 50년생 솜구쳐 오르는 기세의 운로이다. 62년생 편견 없는 발상이 성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74년생 기본에 충실 하라. 86년생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0, 57</p>	<p>44년생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날이니라. 56년생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만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다. 68년생 고려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80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이니 전후좌우를 잘 살피자. 92년생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중요함을 인식하자. 행운의 숫자 : 26, 02</p>
<p>39년생 인식을 함께하려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할 것이다. 51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그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63년생 실용적인 내용이 행운을 잡을 것이다. 75년생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87년생 고통이 따를 것이니 단단히 각오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1, 16</p>	<p>45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57년생 수월해질 것이다. 69년생 폭 넓은 안목이 길잡이의 형세로 이끌 것이다. 81년생 웃고 있지만 내면의 고통은 지울 길이 없다. 93년생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으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때이다. 행운의 숫자 : 88, 23</p>
<p>40년생 바라만 보아도 황홀할 것이다. 52년생 우연히 생긴 것이 적절히 쓰이게 되리라. 64년생 격식에 맞아야 제 빛을 발하리라. 76년생 눈에 띄더라도 못 본 체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 88년생 작은 일을 잘 해내야 큰일도 치를 수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0, 75</p>	<p>34년생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을 세심히 살펴보자. 46년생 시정하는 것이 옳다. 58년생 실수를 두려워하다가는 대응력이 약화 되리라. 70년생 남의 탓으로 돌리다만 자기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82년생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32, 94</p>
<p>41년생 정당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53년생 대체로 순무를 타게 되지만 변수도 보인다. 65년생 진행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잡아야 할 일이 생긴다. 77년생 활력소가 되어 줄 만한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 89년생 미진한 부분을 손질하자. 행운의 숫자 : 39, 15</p>	<p>35년생 눈에 띄는 것이 있으리라. 47년생 의도하는 요소가 있기는 하나 존재 방식이 다르다. 59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마땅하다. 71년생 자신이 직접 행함이 적절하다. 83년생 항상 똑같이 보아 왔다면 문제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4, 76</p>